

# 19세기 말 조선에 대한 일본 외교관의 이미지와 인식

곤도 마사키(近藤真鋤)의  
『눌헌유고(訥軒遺稿)』를 중심으로

김성현

연세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강사, 역사지리 전공

fruitrue@naver.com

- I. 머리말
- II. 일본 외교관의 수사로서 한문학
- III. 근대에 대한 이미지: 「유구집(遊歐集)」을 중심으로
- IV. 조선에 대한 인식: 「계림일조전·후집(鷄林一助前後集)」을 중심으로
- V. 맺음말

## I. 머리말

곤도 마스키(近藤真鋤, 1840-1892)는 1870년(明治3) 일본 외무성에 들어가 1876년 부산항 관리관(管理官)으로 임명되고, 조선 주재 영사(領事)와 대리공사(代理公使) 등을 역임하며 대(對) 조선 외교에 일관한 인물이다. 그는 1881년 이증환의 『택리지(擇里志)』(1751년) 중 「팔도총론(八道總論)」과 「복거총론(卜居總論)」 일부를 일본어로 역술하여 『조선팔역지(朝鮮八域誌)』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후 1893년 그의 작품집 『눌헌유고(訥軒遺稿)』가 출판되었다.

간기(刊記)에 따르면 『눌헌유고』는 1893년 2월 비매품(非賣品)으로 출판되었다. 발행인은 곤도 겐키치(近藤愿吉)와 다카하시 다카요시(高橋剛吉) 2명이다. 겐키치는 마스키의 아들로 당시 어려서 유고를 정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sup>1)</sup> 따라서 실제 『눌헌유고』의 발행을 담당한 이는 다카하시이었다. 『눌헌유고』 본문의 서두에도 곤도 마스키의 조카인 다카하시가 편찬한 것으로 쓰여 있다.<sup>2)</sup> 그리고 발문에서 『눌헌유고』의 출판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곤도가 죽고 며칠 지나 그의 조카 다카하시가 유고를 가지고 이시바타 사다(石幡貞)<sup>3)</sup>를 찾아가서, “모두 숙부가 평생 쓰신 것입니다. …… 번거롭지만 교정하여 친우에게 나누고 혼령을 위로하려 합니다.”라고 하였다.<sup>4)</sup> 『눌헌유고』에는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sup>5)</sup>의 「서(敍)」와 이시바타 사다의 「발(跋)」 외에 총 69편<sup>6)</sup>의 한시와 산문이 실려 있다. 69편은 6집으로 구성되고 「유구집

- 1) 「近藤真鋤傳」에 따르면 1892년 당시 '자녀가 모두 어리고' 아들의 이름이 '愿吉'이었다.
- 2) 『눌헌유고』 “姪 高橋剛吉 纂”. 「近藤真鋤傳」에 따르면 곤도 마스키에게 누나가 있었고, 매형은 ‘膳所藩士 高橋雄太郎’이었다. 高橋剛吉는 高橋雄太郎의 아들로 추정된다.
- 3) 石幡貞(1839-1916)는 1876-1882년 외교관으로서 조선에 부임하고, 1882년 귀국하여 第二高等學校 교수로 재직하였다.
- 4) 『눌헌유고』 「跋」. “訥軒君違世之後數日, 姪高橋某持其遺稿來, 請曰悉叔父平生者, 無若花房公與先生, 此稿雖極蕪雜, 多年心血之所注, 手澤有在, 願煩校脩, 印頒故舊, 或有以慰靈魂矣 ……” (이하 인용된 사료 중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한편 『눌헌유고』의 편찬 과정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유구집」의 18편 중 8편이 ‘近藤真鋤 欧米雜詩 八首’로서 다른 지면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에는 제목이 없고 『눌헌유고』와 비교해 어휘가 다른 부분도 있다. 따라서 곤도 마스키의 생전 혹은 『눌헌유고』가 편찬되는 시점에 작품마다 제목이 붙여지고 어휘가 일부 수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山口久雄編, 『幕末明治 海外体験詩集』(大東文化大学, 1984), 306-311쪽.
- 5) 花房義質(1842-1917)는 조선 주재 대리공사(1877-1880)와 공사(1880-1882), 러시아 주재 특명전권공사(1883-1886) 등을 역임하고 1891-1895년 宮内次官의 지위에 있었다.

(遊歐集)」 18편, 「사곡집(四谷集)」 4편, 「계림일조전집(鷄林一助前集)」 9편, 「계림일조후집(鷄林一助後集)」 23편, 「귀가수록(歸家隨錄)」 9편, 「부유문(附遺文)」 6편 등이다. 작품은 대체적으로 시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유구집」은 곤도가 유럽에 체류하던 시기, 「사곡집」은 일본으로 귀국해 도쿄(東京)에 거주하던 시기와 관련된다. 『눌헌유고』의 약 1/2인 「계림일조전집」과 「계림일조후집」은 곤도가 조선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시기와 관련되고, 「귀가수록」은 사직한 이후의 것이다. 따라서 『눌헌유고』는 곤도 개인의 작품집이지만 조선 주재 일본 외교관이 조선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서술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눌헌유고』의 작품에 대해 시기, 형식, 소재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표) 첫째, 작성 시기는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연도가 추정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유구집」 1872-1876년, 「사곡집」 1876년, 「계림일조전집」 1876-1877년, 「계림일조후집」 1876-1890년, 「귀가수록」 1891-1892년, 「부유문」 1891-1892년 등이다.

둘째, 형식은 크게 한시와 산문으로 구분하고 한시는 세부적으로 고체시와 근체시(절구·율시)로 나눈다. 『눌헌유고』 69편은 형식적으로 한시 57편, 산문 12편이다. 그 중 한시는 고체시 13편과 근체시 44편으로 나누어 형식의 측면에서 근체시를 중심으로 한시가 압도적이다. 근대화가 적극적으로 전개되던 메이지기(明治期) 곤도는 주로 한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다.

셋째, 『눌헌유고』의 내용과 관련해 소재와 어휘<sup>7)</sup> 등을 분석한다. 소재가 다양하고 작품에 따라서 1편에 2개 이상의 소재가 포함되어 소재의 성격을 엄밀히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소재를 기준으로 『눌헌유고』의 내용을 분류하지 않는다. 단 『눌헌유고』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전제로서 소재의 성격을 개략적으로 감상·회고·성찰·교제·논평·풍자 등으로 구분해 보면 감상 26편, 회고 11편,

6) 본고에서 편수는 『눌헌유고』의 체제에 따라 계산하였다. 『눌헌유고』에는 작품 1편마다 제목이 있다. 단 제목 하나에 한시 2수(4편), 3수(4편), 4수(1편), 6수(2편)인 경우가 있고, 『눌헌유고』 47의 경우는 산문 4개로 구성되는데 모두 제목을 기준으로 1편으로 계산하였다.

7) 『눌헌유고』에 쓰여진 어휘의 특징으로 중국어와 일본어 고유의 한자어가 종종 사용되고 있다.

성찰 7편, 교제 13편, 논평 9편, 풍자 3편 등이다. 위의 구분에서 감상은 저자가 현재 경험한 풍경과 계절 등을 다룬 것이고, 회고는 저자가 과거에 경험한 사건과 사물을 소재로 한 것이며, 성찰의 소재는 자신의 처지나 생활이다. 교제는 한시를 화답하는 경우를 고려해 설정한 것이다. 또 논평은 대부분 역사와 관련된 것이고, 풍자의 소재는 정치 세태에 관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눌헌유고』의 형식과 관련해 곤도 마스크가 한문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기록한 점에 대해 분석한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 일본 외교관이 전근대 문화의 장치를 활용한 것으로, 19세기 후반 일본 지식인에 내재된 지적 기반의 실태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곤도가 외교관으로 영국에 체류하면서 체화한 서양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한다. 이는 조선에 대한 인식의 이면을 이해하는 것과 연관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곤도가 일본 외교관의 시점에서 조선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인식하는지를 고찰한다.

## II. 일본 외교관의 수사로서 한문학

곤도 마스크는 1840년(天保11) 오미국(近江国: 현재 滋賀県) 오쓰(大津)에서 태어났다.<sup>8)</sup> 아버지는 곤도 세스케(近藤誠介)이다. 곤도 집안은 대대로 이요국(伊予国: 현재 愛媛県) 고마쓰(小松)에 거주하였는데,<sup>9)</sup> 세스케는 차남으로서 분가하여 오쓰로 이주하고 의사로서 생활하였다. 곤도 마스크가 기억하기를<sup>10)</sup> 어린 시절 깊은 밤 깨어보면 이미 60이 넘는 아버지가

8) 「近藤眞鋤傳」에 따르면 어릴 적 이름은 가쓰노스케(勝之助) 또는 겐키치(愿吉)이었다.

9) 1871년 고마쓰번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近藤眞鋤)同人儀元小松藩管内ノ者=相違無御座候間, 復籍申付候”라고 쓰여 있다. 国立公文書館 デジタルアーカイブ 請求番号 公00259100\_073.

10) 『눌헌유고』 64 「題東郊聯句帖後」. “元治甲子年, 京都之變, 我家罹兵燹, 劍書蕩然, 先考遺物存者無幾, 頃者廣求族戚中, 得手書桂叢隨筆十八冊, 內有重複者, 亦皆存之, 不敢刪除, 裝成一卷, 重手澤所存也, 竊惟先考在世之日, 好談時事, 深歎士氣不振, 欽慕古今名將賢士之行狀, 隨讀隨錄, 是爲其一斑, 不肖眞鋤幸遇明治聖代, 叨忝位官, 鞠躬盡力, 所期無他, 在克己忠孝不墜家聲而已, 今對此書, 如面承庭訓, 捧讀之下, 不覺涕淚濕襟也, 因憶予少時住江南, 夜深夢覺, 忽聞研墨之聲, 起窺書窓, 則燈火耿耿, 人影在窓, 此時先考齡既過六旬, 顯或手抄斯卷, 其黽勉不倦, 可以爲家範, 先考去世之二十九年, 明治二十四年四月, 不肖眞鋤謹書.”

서재에서 먹을 깔고 있었다. 세스케는 일상적으로 서책을 읽고 기록하며 「계충수필(桂叢隨筆)」18책<sup>11)</sup> 등을 남겼다. 그리고 시사(時事)에 대해 즐겨 이야기하고, 사기(士氣)가 부진(不振)한 것을 탄식하였다. 이러한 집안을 곤도는 극기(克己)와 충효(忠孝)를 중시하는 가문이라고 쓰고 있다. 그것은 유학에 기반을 둔 에도시대 지식인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곤도는 어려서 한학(漢學)과 난학(蘭學)을 익히는 한편 19살 미노국(美濃國: 현재 岐阜縣) 오가키(大垣)로 유학해 의학을 배웠다.<sup>12)</sup> 1862년(文久2) 2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곤도는 오쓰의 게카이지(花階寺)에 묘소를 마련하고,<sup>13)</sup> 교토(京都)로 거처를 옮긴다. 교토의 거주지와 관련해 1864년(元治元) 7월 긴몬(禁門) 사건<sup>14)</sup>으로 피해를 입어 가산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당시 곤도는 사건의 피해가 집중된 교토 가모가와(鴨川) 서쪽의 이치조(一條)부터 시치조(七條)에 걸치는 지역에 살았을 것이다.

당시 교토에는 존왕양이(尊王攘夷)에 호응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곤도 역시 그들 중 한명으로 공가(公家)인 사와 노부요시(澤宣嘉)와 교류한다.<sup>15)</sup> 사와는 1858년(安政5) 3월 일미수호통상조약(日米修好通商條約)에 반대하고 존양을 선도하는 공가 중 한명이었다.<sup>16)</sup> 그리고 사와와의 친분을 통해 곤도는 사와의 조카인 아네가코지 긴토모(姉小路公知)<sup>17)</sup>와 교류한다. 아네가코지의 경우 정오위하(正五位下)의 무관(無官)이었지만 조약 칙허를 반대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여, 1862년 9월 우근위권소장(右近衛權少將)에 임명되어 양이를 독촉하는 부사(副使)로서 에도(江戶)로

11) 현재 『桂叢隨筆』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 近藤誠介가 집필 혹은 필사한 글을 모아놓은 책으로 추정된다.

12) 「近藤眞鋤傳」에 따르면 곤도는 후나코시 세조(船越清藏)에게 한학을 배웠다. 船越清藏(1805-1862)는 長州 清未藩의 번사로서 大津와 京都 등에서 학당을 열고 존왕양이를 논하였다. 그리고 곤도는 구로다(黒田)에게서 난학을 배우는데 구로다는 제제번(膳所藩) 출신의 난학자인 구로다 기쿠로(黒田麴蔵, 1827-1892)로 추정된다. 이어서 곤도는 에마 슌례(江馬春齡) 문하에서 의학을 배웠다. 에마 란사이(江馬蘭齋, 1747-1838) 이래 에마가의 의학은 蘭方醫學으로 유명하다.

13) 『눌현유고』 68 「近藤氏追遠碑」. 華階寺는 현재 滋賀縣 大津市 京町3丁目3番14号에 위치한다.

14) 1864년 7월 長州藩이 거병하여 교토 곳곳에서 전투가 있었다. 교토에서 약 3만 호가 소실되었다.

15) 「近藤眞鋤傳」. “君得三位澤公知遇”. 澤宣嘉(1836-1873)는 원래 아네가코지 긴스이(姉小路公遂)의 5남으로 태어났다. 후에 사와 다메카즈(澤爲量)의 딸과 결혼해 데릴사위(婿養子)가 되어 사와 가를 계승하였다.

16) 1858년 3월 공가 88명이 조약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하였다(廷臣八十八卿列參事件).

17) 姉小路公知(1840-1863)의 아버지가 姉小路公前(澤宣嘉의 형)이다.

과견되었다. 당시 함께 과견된 정사(正使)가 산조 사네토미(三条実美)<sup>18)</sup>이고, 곤도는 시의(侍醫)로서 그들을 호종하였다.<sup>19)</sup>

하지만 1863년 5월 아네가코지가 피습되어 죽고, 동년 8월 사와도 교토에서 추방되었다.<sup>20)</sup> 이후 4년간 곤도는 교토에서 활동을 이어가는데 1865년(慶應元) 7월 사와의 형인 이시아마 모토후미(石山基文)<sup>21)</sup> 등과 건의서(建議書)를 작성하고, 1867년 가을에는 공가의 의향을 전하기 위해 조슈(長州)로 가기도 하였다.<sup>22)</sup>

1867년 12월 왕정복고가 이루어지고 사와가 정계로 복귀한다. 사와는 먼저 구주진무총독(九州鎮撫總督)에 임명되어 나가사키(長崎)로 부임하는데, 곤도를 사와 가의 관리로 삼아 동행하였다.<sup>23)</sup> 곤도는 사와의 밑지를 후쿠오카(福岡)의 번주 구로다(黒田)에게 전하는 등 정사에 관여하였다. 1869년(明治2) 사와가 도쿄로 상경하여 초대 외무경(外務卿)에 임명되고, 이어서 1870년 곤도가 외무성(外務省)의 외무권대록(外務權大録)에 임명되었다.<sup>24)</sup> 주목할 것은 신미년(辛未年: 1871) 6월의 문서에 따르면<sup>25)</sup> 당시 곤도는 사와 가의 집사(執事)로 화족(華族)에 종사하면서 권대우(權大佑)<sup>26)</sup>의 신분이기도 하였다.

1860년대 중후반 곤도의 행적을 살펴보면 첫째, 사와 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가와와 네트워크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사와 노부요시가 정계로 복귀하고 외무경에 임명되는 과정은 곤도가 외교관이 되는 데 결정적인

18) 三条実美(1837-1891)는 존왕양이를 주창하는 공가 중 한 명으로 1863년 사건으로 교토에서 추방되었다. 1867년 왕정복고를 계기로 복귀하고 太政大臣(1871-1885), 内大臣(1885-1891) 등에 임명된다.

19) 「近藤眞鋤傳」. “及三條姉小路二公奉勅東下, 以待醫扈從”

20) 1863년 8월 양이과의 분열로 인해 공가와 長州藩 세력이 교토에서 추방되었다(八月十八日の政變 또는 七卿落ち).

21) 石山基文(1827-1891)는 姉小路公遠의 이남으로 태어나 石山基逸의 양자가 되었다. 1867년 왕정복고 이후 복귀하여 宫内省으로 출사하고 1871년 侍從에 임명되었다.

22) 「近藤眞鋤傳」. “慶應元年(1865)七月, 長兵屯八幡有所要請, 石山三位納君議, 會諸卿於其家, 草建議書, 一時連署者七十餘人” “三年(1867)秋中山・正親町・五條三公胥謀, 私遣君及二三志士赴長州計議”

23) 「近藤眞鋤傳」. “明治元年三月澤公歸京, 拜九州鎮撫總督, 延君爲家司, 隨往長崎”

24) 당시 태정관제에서 權大録은 省 소속으로 종7위 제12등에 해당한다.

25) 国立公文書館 デジタルアーカイブ 請求番号 公00259100\_073

文書權大佑近藤眞鋤

右ノ者年來澤家執事見遺處, 今般宮華族家來三代以下ノ者復籍被仰出候ニ付 ……

26) 당시 직관(職官)은 1869년 7월에 제정되어 1871년 6월까지 운용된 태정관제(太政官制)에 따른다. 權大佑는 司 소속으로 종7위 제12등에 해당한다.

계기가 되었다. 둘째, 공가의 관계에서 곤도는 시의, 건의서 작성, 가사(家司) 또는 집사 등을 담당한다. 즉 곤도는 한학과 난학 및 의학이라는 지적 배경을 가지고, 1860년대 첨예하게 정론(政論)이 대립하던 교토에서 공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다.

곤도는 특히 한시와 서화(書畫)에 능한 것으로 평가받았다.<sup>27)</sup> 그는 일상에서 한시를 즐겼는데, 일례로 1869년 봄 교토에서 선릉형(船陵兄)과 함께 살면서 저녁에 연구(聯句)를 지으며 보냈다.<sup>28)</sup> 이후 선릉형이 곤도의 한시를 정서하여 곤도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또 『눌헌유고』에는 제화(題畫)와 관련된 내용이 여러 편 있다.<sup>29)</sup> 동료와 지인이 서화를 부탁하면, 곤도는 겸양하면서도 수락하고 ‘제사(題辭)’, ‘제화(題畫)’를 대신해 시를 보내기도 한다.<sup>30)</sup>

이러한 소양(素養)에 상응해 곤도는 스스로 서화벽(書畫癖)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그는 옛사람의 묵적(墨蹟)을 상당히 수집하기도 하였다. 그의 소장품 중에 중국 작품이 많고, 가장 귀중한 것으로 무학부(舞鶴賦)가 있었다. 주목할 것은 그가 소장품을 구입한 루트이다. 1882년 조선이 내홍을 겪고 사람들이 굶주리던 때 진신(縉紳) 즉 사대부도 문구(文具)를 팔았다. 그때 곤도가 동공무학부(董公舞鶴賦)를 사들이는데, 외교관으로 조선에 체재하면서 중국의 서화를 획득한 것이다. 한편 그는 청국과 조선의 문사(文士)들과 널리 교류하였다. 그 예로 오대징(吳大徵)이 곤도의 누각에서 시를 짓고, 이연우(李延祐)가 그의 소장품을 감정하기도 하였다.<sup>31)</sup> 곤도는 서화에 조예 있고 서화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졌기에 당시 청국 문인이나 예술인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887년 곤도가 조선으로 부임하면서 수십 년간 수집한 작품들을 조카 다카하시에게 맡겼는데, 1889년 화재가 일어나 수집품은 모두 타버렸다.<sup>32)</sup>

27) 「近藤眞鋤傳」. “性多藝, 詩文書畫無所不能”

28) 『눌헌유고』 64 「題東郊聯句帖後」. “明治二年春, 余與船陵兄, 同寓京師, 一夕無聊, 聯句遣悶 ……” 후략 부분에 따르면 1891년 3월 곤도가 그 책을 장황(裝潢)하고 東郊聯句帖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29) 『눌헌유고』 36 「題畫」; 『눌헌유고』 45 「題自画山水」.

30) 『눌헌유고』 32 「題自画山水」; 『눌헌유고』 33 「送岡田生歸國」.

31) 『눌헌유고』 47-1 「董其昌書舞鶴賦」; 『눌헌유고』 47-4 「黃鶴山樵画山水」. 吳大徵(1835-1902)은 중국 江蘇吳縣 출신으로 金石考古學者이면서 1882-1884년 흠차대신으로서 독관영고답등처사(督辦寧古塔等處事)를 맡았다.

32) 『눌헌유고』 60 「二十午年新正」에 따르면 다카하시는 1891년경 나고야(名古屋)에 거

이렇듯 한문학에 익숙한 곤도의 지적 기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메이지 근대적 정치변혁이 지향되지만, 당시 정부 관리의 지식과 인식은 근대 이전 문화의 필터를 통과해 형성된 것이기도 하였다. 또 근대화 지향과 전근대 문화 장치의 기능이 병존하는 배경에는 일본 뿐 아니라 조선과 중국이 자의든 타의든, 근대화에 직면한 동아시아에서 한시라는 장르가 기능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 예로 『눌헌유고』의 「계림일조전집」에 실린 총 9편 중 6편이 당시 동래부사 홍우창(洪祐昌)<sup>33)</sup>을 대상으로 작성되었고, 그 중 3편은 홍우창의 시를 차운(次韻)한 것이다. 1876-1877년 곤도와 홍우창은 부산 관리관과 동래부사라는 공직 관계를 전제로 활발히 시를 주고받았다.

「계림일조전집」의 6편은 소재 성격으로 보면 감상 2편, 교제 2편, 논평 2편으로 나뉜다. 감상 소재의 2편에서 곤도는 봄날의 ‘객심(客心)’을 노래하고, 비오는 날의 ‘객정(客情)’을 전하는 등 지극히 사적인 관계를 내보인다.<sup>34)</sup> 그리고 교제 소재의 2편은 1877년 홍우창이 동래부사의 임무를 마치고 예조판서에 임명되어 한성으로 올라가자, 곤도가 이별을 아쉬워하며 지은 것이다.<sup>35)</sup> 언어가 다르고 나이도 현저히 차이 나는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시는 유용한 소통의 장치였다.

나아가 논평 소재의 한시에서 곤도는 정론(政論)을 피력한다. 1876년 조선과 일본 간에 수호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여전히 항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홀방지(鰲蚌持)’를 경고하고 ‘인교(隣交)’를 주장한다.<sup>36)</sup> 이는 양국 간 체결된 조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열강이 어부지리를 얻어 조선을 침탈할 수 있으니, 이웃하는 일본과 교류를 성실히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시는 사적 혹은 공적 관계를 소통하는 장치이면서 강력히 정치적인 요구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19세기 동아시아에서 한시는 단순히 문학이 아니라 정치 수사이자 수단으로 기능한다. 곤도와 같은 외교관이 한시를 통해 조선의 지방관과

주하였다. 그리고 간기가 작성된 1893년 다카하시는 愛知県 岡崎市 本宿町에 거주하였다.

33) 洪祐昌(1819-미상)은 1875-1877년 동래부사를 역임한 후 예조판서에 임명되었다.

34) 『눌헌유고』 26 「次洪府伯韻」; 『눌헌유고』 28 「答洪府伯」.

35) 『눌헌유고』 30 「送東萊府伯洪祐昌任滿歸京」; 『눌헌유고』 31 「次洪府伯留別韻」.

36) 『눌헌유고』 24 「書感似東萊府伯二首」①. “千里開航路, 海門春日遲, 時平賈携婦, 事少吏耽詩, 桃李猶兄弟, 乾坤豈已私, 隣交期樂易, 莫學鰲蚌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은 개인의 지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동아시아의 '외교'라는 장에서 한시가 정치적으로 기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한시는 지식인에게 일상인 동시에, 창화(唱和)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사(政事)의 일환으로 기능하였다. 이는 19세기 동아시아에서 지식인과 정치인의 한시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 Ⅲ. 근대에 대한 이미지: 「유구집(遊歐集)」을 중심으로

1872년(明治5) 4월 곤도는 외무대록(外務大錄)<sup>37)</sup>에 임명되고 영국에 체재한다. 그리고 유럽 체재의 경험을 소재로 지은 한시 18편이 『눌현유고』 「유구집」에 실려 있다. 18편은 모두 칠언절구이고 소재 성격별로 감상 10편, 회고 4편, 논평 4편 등으로 나뉜다. 먼저 감상 소재의 10편 중 7편은 유럽의 풍경에 대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곤도는 영국에 체재하면서 프랑스 파리과 레만 호(Leman lake)<sup>38)</sup> 등도 여행하였다. 특히 레만 호에 대해서 산수 수려한 명구(名區)로 일본의 비와 호(琵琶湖)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는 레만 호를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한편 장소를 특정할 수 없지만 곤도는 자신이 경험한 장소와 관련해 다리와 공원의 경관을 종종 언급한다.<sup>39)</sup> 그것은 그가 유럽에서 대면한 새로운 경관이었을 것이다.

둘째, 나머지 감상 소재의 3편은 근대 문명에 대한 것으로 동물원, 수정궁, 의사원 등에 관한 것이다. 곤도는 동물원의 타조, 악어, 사자 등을 관람하며 '오주(五洲)를 경험하고'<sup>40)</sup> 또 복사꽃이 만발한 봄날 기차에 올라 수정궁(水晶宮)으로 간다고 노래한다.<sup>41)</sup> 수정궁은 1851년 런던에서 제1회 만국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세워진 건물(The Crystal Palace)을 가리킨다. 만국박람회가 끝난 뒤 1854년 건물이 해체되어 런던 남쪽 시드넘

37) 당시 태정관제(1871년 7월-1876년 12월)에 따르면 大錄은 省 소속의 관임관(判任官)으로 제8등에 해당한다.

38) 『눌현유고』 13 「巴里府所見」; 『눌현유고』 8 「瑯瑯湖」.

39) 『눌현유고』 6 「荷斯蓮湖」; 『눌현유고』 10 「鳩雨園」; 『눌현유고』 11 「蕪萊墩」.

40) 『눌현유고』 3 「動物園」.

41) 『눌현유고』 9 「水晶宮途上」.

(Sydenham)에 재건되는데 콘서트 홀, 식물원, 박물관, 미술관 등이 들어선 대규모 시설로 유명하였다. 곤도는 동물원과 수정궁을 통해 근대 문명을 구체화하면서 당시 국제질서에 상응하는 경관 요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사원(議事院) 즉 의사당을 소재로 한 시이다.<sup>42)</sup> 한시에서 의사당은 ‘백척(百尺)’이나 되는 높은 건물로서 밤에는 주위에 ‘가로등(越列氣燈)’이 환히 빛나는 곳으로 묘사되는 한편 ‘공회(公會)’를 통해 ‘만기(萬機)’가 행해진다고 설명되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을 계기로 정치세력이 분열되고, 1874년(明治7)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이 결집하여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民撰議院設立建白書)를 제출하면서 자유민권운동(自由民權運動)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것은 1880-1890년대 헌법 제정, 국회 개설, 입헌군주제 확립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체제의 변화를 이끄는 서막이었다. 곤도는 영국에서 입헌군주제를 보고 느끼며 근대 일본이 갖추어야 할 정치체제의 방향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셋째, 논평 소재의 4편은 유럽 역사에 대한 것이다. 곤도는 한시 3편에서 나폴레옹(1769-1821) 및 그와 연관된 역사를 다루고 있다. 먼저 황폐해진 ‘백궁(白宮)’ 즉 베르사유궁을 소재로 프랑스혁명과 이후 권력을 장악한 나폴레옹의 성쇠를 말한다.<sup>43)</sup> 또 트리팔가 전투를 소재로 나폴레옹 1세가 패배하고 ‘고도(孤島)’ 세인트헬레나에 유배되어 쇠락한 것을 노래한다.<sup>44)</sup> 한편 곤도는 스코틀랜드의 쇠락에 대해 성벽이 허물어져 이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묘사한다.<sup>45)</sup> 그것은 영국으로 통합된 스코틀랜드에 1860년대 몰락한 에도 막부를 투영하며 권력의 잔인함을 말하는 듯하다. 주목할 것은 곤도가 유럽 역사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점이다. 그는 유럽 체재를 계기로 근대 국가의 확립과 연관되는 18-19세기 유럽 역사를 이해하고, 한시를 통해 권력의 흥망성쇠라는 시점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외교관이라는 직무는 물론, 한문학에 익숙한 지식인이라는 성격과도 연관될 것이다.

넷째, 회고 소재 중 3편은 유럽에서 미국을 거쳐 일본으로 귀국하는

42) 『눌헌유고』 1 「議事院」.

43) 『눌헌유고』 2 「白宮」.

44) 『눌헌유고』 4 「大捷船」; 『눌헌유고』 12 「過佛蘭西書感」.

45) 『눌헌유고』 5 「遊蘇格蘭土途中作」.

여정에 대한 것이다. 곤도는 배꽃 필 무렵 ‘龍動(런던)’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한다.<sup>46)</sup>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빙괴(氷塊)’ 즉 빙하를 보기도 하였다.<sup>47)</sup> 미국에 도착한 후 대륙횡단 철도를 따라 ‘염호(鹽湖)’, ‘육귀(六鬼)’, ‘앵문(櫻門)’을 거쳐 ‘상강(桑江)’에 이른다. 즉 그레이트솔트 호, 로키산맥,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등을 지난 것이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일본으로 귀국한다.

그 과정에서 5월에도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산에 ‘구토민(舊土民)’ 즉 원주민이 사는데, 그들이 붉은 얼굴에 머리가 덩수룩하며 오니(鬼)와 같다고 설명한다.<sup>48)</sup> 일본에서 고대부터 근세에 걸쳐 현재 도호쿠(東北)와 홋카이도(北海道)에 거주하는 이들은 이민족으로 구분되고 에미시, 예조, 아이누 등으로 불리며 오니의 형상으로 묘사되었다. 오니는 일본역사에서 오랫동안 자타(自他) 구분과 그에 기초한 차별을 표현하는 말이다. 따라서 곤도가 아메리카의 인디언을 일본의 오니에 비유한 것은 미국이 근대 국가로 확립되는 과정에 행해졌던 자타 구분과 차별을 당연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유럽 체재를 계기로 작성한 한시에서 곤도는 높이 솟은 ‘누대(樓臺)’가 이어지고, 전기로 밝힌 가로등이 환하며, 동물원과 박람회장 그리고 의사당 등이 존재하는 경관으로 근대 국가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열망한다. 그런데 그가 일방적으로 근대 국가를 추구한 것은 아니다. 그는 유럽의 역사를 통해 근대 국가의 성립과정을 살펴보고, 미국의 역사를 일본 역사와 비교해 본다. 비록 그 이해가 권력의 흥망성쇠에 대한 감상에 치우치고, 비교는 자기중심적 시점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만 그것은 역사 이해에 기초해 서구를 객관화하는 시점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876년(明治9) 곤도는 일본으로 귀국해 도쿄에 거주한다. 1860년대 주로 교토에 거주하였지만, 1870년 외무성으로 출사(出仕)하면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도쿄로 이사하였다.<sup>49)</sup> 「사곡집」이라는 제목에서 그가 요쓰야(四谷), 현재 신주쿠구(新宿区)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눌현유

46) 『눌현유고』 15 「發龍動口占」.

47) 『눌현유고』 16 「渡大西洋」⑤.

48) 『눌현유고』 17 「太平道中」③. “不識人間已有春，寒山五月雪嶙峋，銅顏蓬髮看如鬼，他是美州舊土民”

49) 『눌현유고』 68 「近藤氏追遠碑」. “不肖眞鋤糞箕表，而出仕明治聖朝，奉母移籍東京”

고』에는 당시 그가 작성한 한시 4편이 실려 있다. 4편은 형식적으로 모두 칠언절구이고 소재 성격별로 성찰 2편, 감상 1편, 풍자 1편 등이다.

먼저 성찰 소재의 시를 살펴보면, 자신의 품은 뜻을 아는 사람이 적다고 하면서 곤도는 스스로를 가을이 깊어 조금씩 시들어가는 ‘황화(黃花)’ 즉 국화에 비유한다.<sup>50)</sup> 또 자신을 눈과 서리에도 절개를 지키는 매화에 비유하고 그 모습이 가련하다고 하면서,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고도 말한다.<sup>51)</sup> 당시 곤도가 미래에 불안을 느끼는 동시에 여의치 않은 상황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미 30대 후반으로, 유럽 체재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자신을 외교관으로 이끌었던 사와는 이미 죽고 없어 이후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 직면해 곤도는 정치 세대를 다음과 같이 풍자한다. ‘여사가(女史家)’로 비유되는 권력자의 집 앞은 찾아오는 이로 가득하고, 집안에는 키우는 방법도 모르면서 세상의 모든 ‘명화(名花)’가 가득하다.<sup>52)</sup> 그리고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반영하듯 그는 회고하기를, 유럽 체재를 정리하며 밤마다 꿈속에서 그의 녀이 ‘구주(歐洲)’ 즉 유럽으로 향한다.<sup>53)</sup>

#### IV. 조선에 대한 인식: 「계림일조전·후집(鷄林一助前後集)」을 중심으로

1876년 조·일 수호조규와 부록 및 무역규칙이 체결되고 부산이 개항되었다. 일본 정부는 통상 업무와 거류민 보호를 명목으로 부산에 관리청(管理廳)을 설치하고 관리관을 파견하는데, 동년 10월 곤도가 부산항 관리관에 임명되어 부임한다. 당시 관리관의 당면 과제는 일본인의 거류지를 확정하는 것으로 동년 12월 회담이 시작되었다. 이듬해 1877년 1월 부산구조계조약(釜山口租界條約)이 체결되고, 이전 왜관(倭館) 지역이 일본의 조계지로 설정되었다.<sup>54)</sup> 당시 외교 실무를 담당할 이가 관리관

50) 『눌헌유고』 19 「慢成」.

51) 『눌헌유고』 21 「示友」.

52) 『눌헌유고』 20 「贈女子某」. “青瑩白壁映朝霞, 車馬紛紛女史家, 培養不知有何法, 滿堂紅紫總名花”

53) 『눌헌유고』 18 「題遊歐日記後」.

54) 부산구조계조약은 일본에서 ‘釜山港居留地借入約書’라고 한다.

곤도와 동래부사 홍우창이다.

1876-1877년 곤도가 홍우창을 상대로 작성한 한시 9편이 『계림일조전집』에 실려 있다. 계림일조(鷄林一助)는 곤도가 조선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였음을 드러내는 제목이다. 일반적으로 계림은 신라(新羅)의 이칭으로 알려져 있지만, 18세기 이후 일본에서 조선의 이명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예로 일본에서 통신사와의 창화(唱和)를 편찬해 『계림창화집(鷄林唱和集)』(1712)과 『계림정맹(鷄林情盟)』(1812) 등이 출판되고, 1877년에는 조선에 대한 개설서로 『계림사략(鷄林史略)』이 출판되었다.

『계림일조전집』의 9편은 형식의 측면에서 고체시 2편과 근체시 7편으로 나뉜다. 소재 성격별로 감상 3편, 교제 2편, 논평 2편, 풍자 2편 등이다. 그 중 6편은 앞서 제1장에서 다루었다. 나머지 3편 중 풍자 소재의 2편은 ‘명리(名利)’를 쫓는 세상을 비판하는 한편 ‘대리(大利)’를 도모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다.<sup>55)</sup> 그리고 감상 소재의 1편은 부산의 경관을 노래한 한시 3수이다.

곤도는 영가대(永嘉臺)에 서면 ‘바람이 불어 운연(雲烟)이 흩어지고, 10리 장강(長江)에 달 어리니 영가대에 빛이 가득하다’고 노래한다.<sup>56)</sup> 곤도의 시에서 영가대는 바다와 강에 인접한 것으로 그려지는데, 실제 부산진(釜山鎭) 바깥에 위치하여 바다 가까이 있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곤도의 ‘우인(友人)’으로 『눌헌유고』 발문을 쓴 이시바타도 부산에 체재하면서 부산을 소재로 『부산백영(釜山百詠)』을 지었다. 그 중 영가대에 대하여 ‘밀물이 삼면으로 밀려온다’고 노래하니, 바다에 면한 영가대의 모습이 한층 분명해진다.<sup>57)</sup>

다음으로 이전 왜관이었다가 당시 일본 조계지로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곤도는 ‘푸른 소나무가 해만(海灣)을 따라 늘어섰다고 노래한다.<sup>58)</sup> 이시바타도 ‘일본 조계지에 용두산(龍頭山)과 용미산(龍尾山)이 있는데 항구 인근의 용미산에 괴석과 소나무가 많아 경치가 뛰어나다’고 적고 있다.<sup>59)</sup>

55) 『눌헌유고』 27 「偶成」; 『눌헌유고』 29 「示人」.

56) 『눌헌유고』 25 「釜山雜詠」④. “簾前天馬勢崔嵬，風捲雲煙面面開，十里長江一痕月，清光多在永嘉臺”

57) 『釜山百詠』 41 「臺榭雅詠」. “數幅蒲映水開，孤鴻飛過碧崔嵬，滿榻題詠雲烟筆，併捲暮潮三面來” 허경진, 「일본 시인 이시바타 사다의 눈에 비친 19세기 부산의 모습」, 『인문학논총』 15-1(2010), 65쪽에서 재인용.

58) 『눌헌유고』 25 「釜山雜詠」④. “一堆翠滴曲灣邊，來倚松根日似年，欲喚賈人寄鄉信，煙波已隔夕陽船”

또 곤도는 『조선팔역지』의 「부산기(釜山記)」에서 조계지 일대가 송림으로 울창하다고 쓰면서 “(부산 일대)산들이 모두 평범하고 민둥하여 조금도 푸르지 않다. (하지만)일본 거류지 내 두 산은 수백 년 도끼질을 하지 않아 고송 노목이 뻗뻗이 숲을 이루니 한눈에 울창하여 실로 별세계와 같다.”<sup>60)</sup>고 평가하였다.

주목할 것은 곤도가 풍경을 노래한 구에 이어서 ‘상인을 불러 소식을 전하고 싶는데 배는 저 멀리 가네’라며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이는 아직 우편선(郵便船)이 개통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사실 1876년 11월 일본 관리청에 우편국(郵便局)이 개설되면서 일본과 서신 연락 사무가 행해졌다. 곤도는 부산의 자연을 노래하는 한편 아직 근대 문물을 갖추지 못한 조선의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계림일조전집」에 이어서 「계림일조후집」의 23편에는 조선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보다 풍부하게 전해진다. 「계림일조후집」은 한시 20편과 산문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재 성격별로 교제 10편, 감상 7편, 회고3편, 성찰 2편, 논평 1편 등이다. 교제와 회고 소재의 한시 중 일부는 제1장에서 언급하였다.

교제 소재의 10편은 동료, 친구,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다. 동료에게 보낸 시가 7편으로 가장 많고 친구 2편, 정치인 1편이다. 그 중 곤도가 시를 보낸 정치인은 ‘원위정(袁慰庭) 즉 원세개(袁世凱)<sup>61)</sup>이다. 원세개는 1885년 이래 총리교섭통상사의대신(總理交涉通商事宜大臣)으로서 조선에 체재하고 있었다. 원세개가 칼을 좋아한다고 하자 곤도는 경인(庚寅) 즉 1890년 6월에 고검(古劍)을 선물하며 시를 함께 보낸다.<sup>62)</sup> 그는 한시를 통해 동래부사와 관계를 심화한 것처럼 청국 외교관과의 관계에도 한시를 활용한 것이다.

교제 소재의 한시 중에는 1882년 임오년 사건 이후 8년이 지나 구우(舊友) 히사미즈 사부로(久水三郎)를 만나 감회를 적어 보낸 것이 있다.<sup>63)</sup>

59) 허경진(2010), 앞의 논문, 60쪽에서 재인용

60) 近藤真鋤 和解, 『朝鮮八域誌』「釜山記」(1881), 113쪽, 116쪽.

61) 袁世凱(1859-1916)는 1885년 11월 21일 이홍장(李鴻章)의 명을 받고 조선 주재 총리교섭통상대신에 취임하여 서울에 주재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귀국하여 직례안찰사에 임명되었다.

62) 『눌헌유고』 49 「袁慰庭有愛刀癖」.

63) 『눌헌유고』 37 「濟物浦歌」. “昔余來濟物浦時, 茅屋四五倚山欽, 傍有砲臺占要衝, 必將一擊攘洋夷, 滿目烟波夕陽微, 不勝瘴霧濕客衣, 上岸潮痕三十尺, 一條水路船可移, 花公

그리고 곤도는 회포를 표현하는 구절에서 제물포의 과거와 현재 경관을 비교한다. 즉 그가 제물포에 갔던 1870년 후반과 1890년경 제물포가 대비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870년대 후반 제물포는 지형적으로 안개가 자욱하고, 습기가 많으며, 밀물이 30척 정도 차오르는 지역으로 초가 4-5채와 포대가 있을 뿐이었다.<sup>64)</sup> 하지만 1890년경 제물포 하구에는 푸른 기와와 하얗게 꾸민 벽을 갖춘 집이 늘어서, 그 모습이 황홀하고 신기루 같으니 문명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곤도가 지적하기를 그러한 변화는 1881년 일본공사 하나부사가 제물포를 개항하도록 요구한 것에 시작되었고, 조선 조정이 비로소 긴 잠에서 깨어났다.<sup>65)</sup> 그리고 개항 이후 제물포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편리해지고 서구 각국이 와서 조약을 맺으면서 포대가 사라져 지역이 정비되었다. 또 선박이 왕래하고 백성의 이익이 생겨나 세상에 제물포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앞으로는 문명화가 널리 전개되고 조선은 일본의 선린(善隣)으로서 팔도가 부강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한시에서 곤도는 시각적으로 초가[茅屋]와 서양주택[靑瓦粉壁]을 대비한다. 또 조선을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長夜睡] 나라로, 반면 일본은 문명화[文明之化]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비한다. 잠든 조선이라는 이미지는 '고왕국(古王國)<sup>66)</sup>, 300년 수령[三百星霜] 은행나무<sup>67)</sup> 등의 표현과도 일맥상통한다. 곤도는 1887년 이래 조선에서 체류한 경험을 되돌아보는 시에서도 외교에 힘써 자신의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고 말하는 한편, 조선에 대하여 '세상은 맹호(猛虎)가 날뛰듯 어지러운데 국론(國論)은 우물에서 어리석은 개구리를 기르는' 격이라고 하였다.<sup>68)</sup> 이는 당시

---

提出開港議，驚破韓廷長夜睡，要港一開公功成，戰守好交忽易地，爾後歐亞各國來訂盟，撤去砲臺平岡陸，商舶往來民利起，濟物之名天下稱，久兄固爲花公識，追隨會記披荊棘，公去余歸君獨留，八年經營多君力，余今承乏在公後，好擊星槎問舊友，恍覺蜃氣開幻境，靑瓦粉壁壓江口，文明之化駭駭乎，余知其不止一隅，鷄林必竟是善隣，八道富強儘可圖……”

- 64) 『朝鮮八域誌』 「自仁川至京城記」에 따르면 월미도에 인가가 40-50채, 제물포 입구에 인가 30호가 있었다. 따라서 한시에서 초가 4-5채라는 표현은 제물포의 한적함을 드러내기 위한 과장으로 이해된다.
- 65) 제물포 개항에 대한 의견은 1879년 4월 일본공사 하나부사가 조선에 전한 편지의 내용과 흡사하다. 『高宗實錄』 1879년 4월 19일조.
- 66) 『눌헌유고』 32 「題自画山水」. “朝鮮古王國，山水亦塊琦”
- 67) 『눌헌유고』 40 「銀杏樹歌」. “有客桂杖頻俯仰，此樹不知高幾長，鐵幹聳天石根蟠地，風聲常起萬雷響，老大如是世所稀，三百星霜爲誰支”
- 68) 『눌헌유고』 50 「明治二十三年九月十八日作」. “人訛市中奔猛虎，國論井底養痴蛙，折

조선을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로서 ‘치와(痴蛙)’에 비유함으로써, 열강의 외교가 치열한 만큼 조선의 무능과 쇠락이 대비되고 있다.

그런데 곤도는 한시를 통해 이미지의 대비에 머물지 않고, 초가와 잠든 모습의 조선이 일본에 의해 선도된 문명화를 계기로 변화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임진년 전쟁을 소재로 하는 한시에서 그러한 시점은 한층 분명해진다.

곤도는 조선을 수령 300여년의 은행나무에 비유한 후, 은행나무를 상대로 임진년 전쟁에 대해 말한다. 곳곳에 무고한 시체가 가득하고 팔도 초목에 유혈이 낭자했던 참혹한 상황을 전하며, 큰 별(大星)이 지고 임금(韓主)은 옛 궁궐로 돌아갔다고 말한다.<sup>69)</sup> 여기서 그는 대성과 한주를 대비하며 당시 조선의 왕권을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이어서 곤도는 지금에 이르러 일본 천황의 덕이 세상에 가득하고 대외관계가 새로이 정립되어 일본과 조선의 ‘구원(舊怨)’이 사라졌다고 평하면서, 은행나무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이후 사신의 수레를 뭍 것인가 아니면 장수의 말을 뭍 것인가?’<sup>70)</sup> 곤도는 임진년 전쟁을 논하고 전쟁의 곤란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조선은 일본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동시에 문명과 근대를 체화한 국가로서 일본이 조선과의 관계를 선도한다고 주장한다.

곤도가 조선과 일본을 대비하고 일본이 선도하는 원만한 관계를 강조하는 데는 조선의 역사에 대한 그의 식견이 작용하고 있다. 그 예로 곤도의 친구인 시오카와(塩川)가 조선에 관한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한 후 『조선약사(朝鮮略史)』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시오카와는 곤도에게 『조선약사』의 서문을 부탁한다.<sup>71)</sup> 그 서문에서 곤도는 『조선약사』에 대해 간명하지만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평한다. 그리고 조선의 역사에서

---

衝樽俎舌常爛，埋首文書鬢欲華”

69) 『눌헌유고』 40 「銀杏樹歌」. “…… 憶汝曾閱壬辰役，滿城積累無辜屍，八道草木皆流血，十萬兵丁苦徵發，大星墮地事已矣，韓主終復舊城關 ……” 시에서 大星은 이순신으로 추정된다.

70) 『눌헌유고』 40 「銀杏樹歌」. “…… 我皇聖德滿天地，玉帛新通舊怨棄，長生似待遇太平，好映日旗凝老翠，嗚呼人世由來多變遷，我酌一杯嘯秋天，期汝從今永駐使臣車，莫記絕海戰將繫馬年”

71) 『눌헌유고』 66 「朝鮮略史序」. 塩川는 塩川一太郎로 추정되고 공사관의 一等通譯官으로 활동하였다. 단 현재 『朝鮮略史』가 어떤 책인지 명확하지 않다.



임진년 전쟁, 병자년 전쟁 그리고 19세기 후반 조선과 각국의 통상협약을 중요하게 지적한다. 그는 한 국가의 역사에서 「화친과 전쟁」보다 중한 것이 없으니, 전쟁 경과와 수교(修交)를 살피는 것이야말로 백세(百世)의 성쇠를 아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조선붕당론(朝鮮朋黨論)」에 근거해 붕당의 경과를 개략한다. 결국 ‘조선 정부는 정견(定見)이 없고 기강이 날로 해이해’져서 ‘붕당의 폐로 인해 국세(國勢)가 좌우되었다’고 지적한다. 이상으로 곤도가 전쟁과 외교 등을 중시하는 한편 조선 쇠락의 내부 요인에 주목하면서 조선에 대한 역사 인식을 구체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붕당 폐해를 강조하는 이해는 조선의 타율성을 당연시하는 관점으로 연결된다.

조선의 타율성을 내면화하는 곤도의 역사인식은 조선의 정치와 사회는 물론 국제관계에서도 조선과 일본을 대비시킨다. 일례로 곤도가 1890년(명치23) 퇴관하면서 해군소좌(海軍少佐) 이노우에(井上)에게 시를 쓴다.<sup>72)</sup> 그는 1889년과 1890년 조선의 상황을 서술하면서 당시 이노우에의 대응을 논하고 그의 처신에 대해 조언한다.

먼저 조선의 상황에 대해 곤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89년 한경(韓京)에 양객(洋客) 혹은 외객(外客)이라 불리는 서양인이 식아(食兒) 즉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살인을 하니 성중에 피 비린내가 났다. 이에 러시아·미국·프랑스 등이 군대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1890년에는 조선인이 정부에 일본과 청국의 가게를 철폐하도록 청하니, 성중에 장사가 중지되고 위기가 급박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청국 그리고 러시아가 대치하는데, 조선의 문신(文臣)은 돈을 밝히고 무관은 죽음을 두려워하니 ‘외환내우(外患內憂)’의 상황이다.<sup>73)</sup>

사실 1889년 사건은 1888년 6월에 일어난 것으로, 한시의 내용은

72) 『눌헌유고』 51 「留別井上海軍少佐」. “食兒之訛動韓京，激起愚民勢崢嶸，殺人不辨良與莠，城中處處血痕腥，洋客傳語膽先墜，俄美佛館各徵兵，與君談笑坐公署，三尺短牆是長城，〈明治廿二年，韓京訛傳，外客食兒，市民爲之激動〉撤棧聲湧如決水，韓商閉肆不成市，安危誰道間一髮，君有妙算帷幕裡，〈廿三年韓〉民強請政府，欲廢撤日清兩國商棧，滿城嗷嗷數日不成市，事變如斯知幾回，未足試君雄偉才，眼前別有禍機伏，八道草木奈將來，旭日高上南山巔，走龍翔鷲掌上看，文臣愛錢士畏死，外患內遊爭後先，今余解任氣已沮，殘生須結松菊侶，感君平生提携恩，臨別豈無知己語，君不見東方形勢累卵危，男兒功名措此地從何所。” 원문에서 內遊은 오류로 추정하고 內憂로 교정함.

73) 『눌헌유고』 51에서 조선의 지배층뿐 아니라 백성도 患民으로 표현되고 있다.

과장된 면이 있다. 1890년 사건도 방곡령(防穀令)과 관련된 것으로 일본이 의도한 측면이 있다. 곤도는 한시에서 조선의 내외환을 강조하기 위해 사건을 과장하는 동시에 일본의 시점을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당시 조선의 외환에 대한 표현이다. 즉 ‘떠오르는 해가 남산(南山) 높이 떠 있고, 달리는 용과 나는 독수리가 내려다보는’ 형세로 일본과 청국 그리고 러시아가 대치하고 있다. 1882년 임오년 사건으로 공사관이 불타자 이후 일본은 남산 일대에 공사관을 비롯해 주요 시설을 설치하였다. 곤도 역시 남산에 친근하여 겨울이 지나 점차 따뜻해지는 봄날 남산에서 한강(漢江)을 바라바보며, 십리(十里) 한강에 얼음이 녹아서 나룻배로 쉽게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고 노래하였다.<sup>74)</sup> 그렇듯 1880년대 조선에서 남산은 일본과 밀접한 장소가 되었는데, 1890년 곤도는 일본을 ‘남산 위의 떠오르는 해’라는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즉 남산은 일본과 밀접한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떠오르는 해가 높이 걸리는 곳으로 형상화되며 일본의 정치적 공간으로 재편되었다.

이렇듯 조선의 상황을 설명한 후 곤도는 이노우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평하고, 이노우에의 행동을 ‘은밀히 묘산(妙算)을 세우는 것’ 같다고 비유한다. 그러면서 이노우에에게 ‘동방의 형세가 누란(累卵)의 위기’인 것을 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실 조선이야말로 남자가功名(功名)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조언한다. 1876년 이래 조선과의 외교에 일관한 곤도에게 이제 조선은 군대를 동원해 정복하여야 할 땅이 된 것이다.

## V. 맺음말

곤도 마사키는 1860년대 교토 공가와와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메이지기 외교관으로 진출하고, 유럽 체류를 경험한 이후 15년간 대 조선 외교에 깊이 관여하였다. 1870-1880년대 곤도는 일본 외교관으로 조선에서 활동하면서 조선과 일본을 비문명과 문명의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그리

74) 『눌헌유고』 43 「南山官廨」①. “南山日暖翠依依，目送孤鴻雲外飛。十里漢江水既解，春帆容易載人歸”

고 조선에 대한 역사 인식을 전제로 일본이 선도하는 문명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조선에 대한 정복의 시선을 구체화한다. 그 과정에서 곤도는 한문학을 통해 조선의 상황을 ‘치와(痴蛙)’, 내우외환(內憂外患), ‘누란(累卵)’ 등의 단어로 표현하였다.

『눌헌유고』에서 조선이 ‘오래된’ 나라이면서 정치와 사회 실상에서 어리석고 무능한 나라로 평가된 반면, 서양은 누대·가로등·동물원·다리·기차·의회 등으로 구체화되는 ‘아름다운’ 곳으로 표현된다. 조선과 서양의 대비가 두드러지는데, 그 이면에는 근대와 문명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 교차되고 있다. 즉, 곤도 마스키는 서구사회를 모델로 근대를 설정하고 서구화의 근대를 열망하는 한편, 서구와 일본의 역사를 비교하는 태도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서구화의 근대를 상대화한다. 반면 조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곤도는 일본을 근대의 체현으로 전제하고, 조선에 대한 역사 인식에 기초해 일본 주도의 근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근대와 문명은 서구-일본의 관계에서 상대화되지만, 일본-조선의 관계에서는 지배-피지배 관계의 확립을 위한 명분으로 절대화된다.

1891년(明治24) 곤도는 병이 깊어 일본으로 귀국한다. 당시 도쿄 스미다가와(隅田川) 근처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sup>75)</sup> 자신의 거처를 ‘소평과(邵平瓜)’에 비유한다.<sup>76)</sup> 동년 4월 그는 동경지학협회(東京地學協會)에서 「조선에 대하여(朝鮮に就いて)」<sup>77)</sup>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였다. 먼저 곤도는 외교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조선을 많이 돌아보지 못했다고 밝히고, 당시 조선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던 녹둔도(鹿屯鳴)와 경흥(慶興)에 관하여 소식을 전한다. 두 곳은 러시아와 긴밀히 연관된 지역으로, 1890년대 초 일본이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곤도는 실제 답사한 곳으로 남한성(南漢城)과 삼전도(三田渡)에 대해 언급하고 정묘년과 병자년 전쟁의 상황, 대청황제공덕비(大清皇帝功德碑)의 건립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광주(廣州)에서 조선인 상인을 만났던 일화를 전한다. 상인의 말에 따르면 ‘광주에서 질 좋은 도기를

75) 『눌헌유고』 55 「墨堤偶成」④. “三歲歸來舊板扉，依然墨水白鷗飛；「墨堤偶成」⑤ “烟淡風清墨水秋” 이와 관련해 1893년 近藤愿吉의 주소는 東京 向島須崎町 180번지로 스미다가와 인근에 해당한다.

76) 『눌헌유고』 50 「明治二十三年九月十八日作」. “多謝皇天憐衰朽，秋風既到邵平瓜”

77) 近藤真鋤, 「朝鮮に就いて」, 『東京地學協會報告』 第十三年第壹號(1891).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 오히려 생업을 유지할 수 없다. 도기의 품질이 좋아지면 관인(官人)이 갑자기 많이 구매할 것인데 그들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곧도는 조선인 상인의 말이 '조선국 상황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은 여전히 구태의연하다고 지적한다.

표-『눌헌유고(訥軒遺稿)』 소재 작품

번호	제목	편명	작성시기	형식	소재	성격
1	議事院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議事院	감상
2	白宮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白宮	논평
3	動物園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動物園	감상
4	大捷船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大捷船	논평
5	遊蘇格蘭土途中作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蘇格蘭土	논평
6	荷斯蓮湖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荷斯蓮湖	감상
7	依仁堡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依仁堡	감상
8	瑯瑯湖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瑯瑯湖	감상
9	水晶宮途上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水晶宮	감상
10	鳩雨園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園	감상
11	蕪萊墩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蕪萊墩	감상
12	過佛蘭西書感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孤島	논평
13	巴里府所見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凱歌門	감상
14	失題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春風	감상
15	發龍動口占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客程	회고
16	渡大西洋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3수	閩龍比亞	회고
17	太平道中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4수	鹽湖	회고
18	題遊歐日記後	遊歐集	1872-1876	칠언절구	歐州	회고
19	慢成	四谷集	1876	칠언절구	黃花	성찰
20	贈女子某	四谷集	1876	칠언절구	女史家	풍자
21	示友	四谷集	1876	칠언절구	梅花	성찰
22	即事	四谷集	1876	칠언절구	桂香	감상
23	次東萊府伯洪祐昌韻	鷄林一助前集	1876-1877	칠언고시	繩墨	논평
24	書感似東萊府伯二首	鷄林一助前集	1876-1877	오언율시, 2수	航路, 海門	논평
25	釜山雜詠	鷄林一助前集	1876-1877	칠언절구, 3수	船, 永嘉臺	감상
26	次洪府伯韻	鷄林一助前集	1876-1877	칠언율시	詩境	감상
27	偶成	鷄林一助前集	1876-1877	칠언절구	花	풍자

28	答洪府伯	鷄林一助前集	1876-1877	칠언율시	塵事	감상
29	示人	鷄林一助前集	1876-1877	오언고시	毀譽語	풍자
30	送東萊府伯洪祐昌任滿滯京	鷄林一助前集	1876-1877	칠언율시	惜別	교제
31	次洪府伯留別韻	鷄林一助前集	1876-1877	칠언율시	相送	교제
32	題自画山水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오언고시	小詩	교제
33	送岡田生歸國	鷄林一助後集	1877, 1880-1881	오언고시	揮毫	교제
34	贈谷生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오언고시	小屈	교제
35	聞趙進士謫渭原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칠언절구	南山月	감상
36	題畫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칠언절구, 2수	秋	감상
37	濟物浦歌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칠언고시	濟物浦	교제
38	偶成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오언고시	山雨	감상
39	席上贈陳次旌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칠언율시	客土	교제
40	銀杏樹歌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칠언고시	壬辰役	논평
41	兵一岡兄來示石幡翁送別長篇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산문(賦)	諸友	교제
42	梁田周吉病起索詩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산문(賦)	病痊	교제
43	南山官廨雜詩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칠언절구, 3수	南山	감상
44	正広刀歌為岡兵一氏作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칠언고시	正廣刀	교제
45	題自画山水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오언고시	山水	감상
46	次小田切富卿書懷韻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칠언율시, 6수	孤臣	성찰
47_1	董其昌書舞鶴賦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산문(賦)	舞鶴賦	회고
47_2	唐白虎画山水祝枝山跋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산문(跋)	山水画	회고
47_3	沈寅画蘆鷹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산문	沈寅画	회고
47_4	黃鶴山樵画山水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산문	山水画	회고
48	東村氏之災, 多亡余所藏書畫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칠언고시	書畫	회고
49	袁慰庭有愛刀癖	鷄林一助後集	1890	칠언율시	古劍	교제
50	明治二十三年九月十八日作	鷄林一助後集	1890	칠언율시	星槎	회고
51	留別井上海軍少佐	鷄林一助後集	1890	칠언고시	知己語	교제
52	偶成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칠언절구	勝區	감상
53	次小田切生韻	鷄林一助後集	1890	칠언절구	五十年	성찰
54	去韓京途上偶成	鷄林一助後集	1876-1890	칠언절구	楊柳渡頭	감상

55	墨堤偶成	歸家隨錄	1891-1892	칠언절구, 6수	歸來	성찰
56	遊妙義山	歸家隨錄	1891-1892	오언율시	妙義山	감상
57	妙義客舍	歸家隨錄	1891-1892	칠언절구, 3수	客舍	감상
58	中井椽洲本野盛亭 來訪	歸家隨錄	1891-1892	칠언절구, 2수	來訪	감상
59	立春梅歌	歸家隨錄	1891-1892	칠언고시	立春梅	회고
60	二十五年新正	歸家隨錄	1892	칠언절구, 2수	震災	교제
61	奧九臯兄見示龜井觀 梅口占, 因次其韻	歸家隨錄	1891-1892	칠언절구	梅	감상
62	咏柳	歸家隨錄	1891-1892	칠언절구	柳	감상
63	徙居矢口村口占二首	歸家隨錄	1892	칠언율시	徙居	성찰
64	題東郊聯句帖後	附遺文	1891	산문	東郊聯句帖	성찰
65	謹書先考手書桂叢隨 筆後	附遺文	1891	산문	桂叢隨筆	회고
66	朝鮮略史序	附遺文	1891-1892	산문(序)	朝鮮略史	논평
67	網廣刀記	附遺文	1891	산문(記)	網廣刀	논평
68	近藤氏追遠碑	附遺文	1891-1892	산문(碑)	立碑	회고
69	立春梅碑	附遺文	1891-1892	산문(碑)	立春梅	회고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近藤愿吉·高橋剛吉, 『訥軒遺稿』. 1893.

近藤真鋤 和解, 『朝鮮八域誌』. 1881.

近藤真鋤, 「朝鮮に就いて」. 『東京地学協會報告』 第十三年第壹號, 1891.

石幡貞, 「近藤真鋤傳」. 『東嶽文抄』 3권, 1910.

「国立公文書館 デジタルアーカイブ」.

『高宗實錄』.

### 2. 단행본

山口久雄編, 『幕末明治 海外体験詩集』. 大東文化大学, 1984

### 3. 논문

허경진, 「일본 시인 이시바타 사다의 눈에 비친 19세기 부산의 모습」. 『인문학논총』  
15-1, 2010, 49-71쪽.

大沼宜規, 「日本漢詩翻訳索引」. 『参考書誌研究』 75, 2011, 1-21쪽.

## 국문 초록

곤도 마스키(近藤真鋤, 1840-1892)는 1870년 일본 외무성에 들어가 1876년 부산항 관리관으로 임명된 이래 조선 주재 영사와 대리공사 등을 역임하며 15년간 대 조선 외교에 일관한 인물이다. 그의 사후 1893년 그의 작품집 『눌헌유고(訥軒遺稿)』가 출판되었다. 『눌헌유고』에는 서문과 발문 외에 총 69편의 한시와 산문이 실려 있다. 그 중 약 1/2이 곤도가 조선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시기와 관련된다. 따라서 『눌헌유고』는 곤도 개인의 작품집이지만 조선 주재 일본 외교관이 조선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서술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860년대 교토 공가와와의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메이지기 외교관으로 진출한 곤도는 1870-1880년대 일본 외교관으로서 조선에 체류하면서 조선과 일본을 비문명과 문명의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역사 인식을 전제로 일본의 선도에 의한 문명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조선에 대한 정복의 시선을 구체화한다. 즉 일본의 외교관이 한문학을 통해 조선의 상황을 ‘치와(痴蛙)’, 내우외환(內憂外患), ‘누란(累卵)’ 등의 단어로 규정하면서 조선에 대한 정복을 욕망한 것이다.

**투고일** 2018. 9. 20.

**심사일** 2018. 10. 15.

**게재 확정일** 2018. 11. 20.

**주제어(keyword)** 곤도 마스키(Kondo Maski), 눌헌유고(Nulhun Yugo), 한문학(Chinese literature), 외교관(Diplomat), 문명(civilization)



## Abstracts

### A Japanese Diplomat's View of Late-19th-century Korea:

#### Focusing on Kondo Maski's *Nulhun Yugo*

**Kim, Sung-hyun**

Kondo Maski (近藤真鋤, 1840-1892) joined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in 1870. Appointed as a Busan port manager in 1876, he served as a consular officer and chargé d'affaires in Korea, working for 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in Korea for 15 years. After his death, his book, *Nulhun Yugo* (訥軒遺稿) was published in 1893, which included 69 Chinese-language poems and proses in addition to a preface and a postscript. About one-half of them relate to the period of his diplomatic assignment in Korea. While *Nulhun Yugo* is a collection of Kondo's writings, it may be understood as being reflective of the overall view of Japanese diplomats toward Korea at the time.

Kondo advanced to the Meiji diplomatic mission in the 1860s through the network of the Kyoto Kuge (公家) and served as a Japanese diplomat from the 1870s to the 1890s. During his stay in Korea, he portrayed Korea and Japan with the image of uncivilization vs. civilization. Based on the historical awareness, he projected the view of conquering Korea on the excuse of making Korea civilized under Japanese leadership. He employed Chinese-language literary forms to define the conditions of Korea as being a 'big fish in a little pond,' 'in internal and external woes,' and 'at the brink of collapse' and call for its overthrow.